

■ 영업정지 저축銀 예금 어떻게 보호받나

원리금 5천만원까지 석달내 지급

우선 1인당 1500만원씩... 문닫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져

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일단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가입 당시 이율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당국은 19일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당장 돈이 급한 예금자를 위해 잠정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가처분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처분금 지급 한도는 1500만원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함께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지급 대상이다.

가처분금을 받고 나서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영업 정상화에 실패, 문을 닫아 버려도 가처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내 나머지 원리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처리 방식에 따른 투자자 피해

처리방식	5000만원 이하 예·적금	5000만원 이상 예·적금	후순위 채권
영업정지	피해없음	피해없음	피해없음
피인수 합병	"	"	"
자산·부채이전(P&A)	"	5000만원까지 보장 초과액 자산정리 후 지급	상환불가능
파산	소정의 이자율(연 2.39%)로 보장	"	"

만약 영업정지 기간에 출자가 필요하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자이다. 5000만원 초과분은 지급 보장을 받지 못하고, 후순위채권은 말 그대로 투자금 지급 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한 사람은 연인원 6515명으로,

이들의 전체 예금액은 4606억원에 이른다. 여기서 5000만원 초과분은 1308억원으로, 이 금액만큼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5000만원 초과분은 부산II가 641억원(3900명)으로 가장 많고 보해 385억원(1861명), 중앙부산 243억원(438명), 전주 66억원(316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지난 17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를 전후해 미리 예금을 찾아가 실제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후순위채는 나중에 파산 배당을 기다려야 하므로 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한국판 테디베어 '에버베어' 인기 짱

삼성에버랜드가 올해 초 출시한 새끼 불곰 인형 '에버베어'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삼성에버랜드에 따르면 올 초 출시한 에버베어가 성인구매비율 50% 등 어른들에게도 호평을 받으면서 방문객이 적은 비수기임에도 1개월 만에 1000여개를 팔았다고 밝혔다. 한국판 '테디베어'를 목표로 기획된 '에버베어'는 스웨이드(부

드럽게 부풀려 솜털을 세운 가죽) 소재의 불곰 인형 '에버베어'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통상 인형을 사는 고객의 비율이 성인 10%, 청소년 20%, 아동 70%인 것과는 달리 이 인형의 구매자는 연인이나 동남아·중국 관광객 등 성인이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光銀 적립식 상품 가입자 다양한 혜택

광주은행은 21일부터 적립식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행복클로버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행복클로버 이벤트'는 적립식 예금, 적립식 펀드, 저축성 보험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리 우대, 사은품 제공, 경품 추첨 등의 혜택을 준다.

이 기간동안 적립식예금 가입자에 0.3%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적용하고 거래 실적에 따라 만기 해지 시

최고 1.0%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또 행사 기간에 'KJB 파워월복리적금'에 가입하면 만기 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4.5~4.9%의 금리를 제공하며 정액적립식펀드 20만원 이상, 저축성보험 10만원 이상 가입시 선착순 4000명에게 클로버 책갈피를 증정한다.

이밖에 광주은행은 대상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나 드림세탁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예보 "영업정지 저축은행 실사후 매각"

유상증자 등 통해 정상화 땀 조기 영업재개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1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저축은행의 제3자 매각이 성사된다면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은 보호받기 어렵다.

예보는 이날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 고객 종합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상화 어려우면 매각 추진 = 예보는 최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6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실사를 거쳐 우선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자본유치 등을 추진토록 한 뒤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곳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이날 부산II·중앙부산·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을 일단 실사해 순자산규모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관리를 파견하고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대주주가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구노력에 나서 정상화가 이뤄진 저축은행은 조기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주주가 자구노력에 실패한 곳에 대해서는 예보가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또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은 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보다 개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측은 그러나 저축은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예보,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 가동..내달 2일부터 가처분금 지급 = 예보는 이날 저축은행 담당이사를 반장으로 하고 직원 및 민원도우미 등 약 100명이 참여한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처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www.kdic.or.kr)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센터(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시기로 했다. 예금자들은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 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 '일찾기 어플' 무료보급

고용노동부는 스마트폰용 일자리 애플리케이션 '무대리 일찾기'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무대리 일찾기'는 워크넷, 잡영, 인쿠르트 등 각종 취업 관련 사이트를 비롯해 수험정보, 직업적성 테스트,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등 구직자와 취업 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부가 세계 최초로 한국 고용정보원과 함께 개발한 '심리탐색'은 간단한 O·X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까지 찾아준다. /연합뉴스

GM코리아, 제작결함 CTS 리콜

국토해양부는 GM의 캐딜락 CTS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인 GM코리아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2년 5월10일에서 2006년 4월28일까지 제작돼 수입 판매된 560대이다. 이를 차량에서는 앞브레이크 파이프의 일부가 부식돼 브레이크 오일이 새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공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GM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매수 관점 시장접근 필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정점을 찍고 한 풀 꺾이자,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18일) 반등에 성공하며 주요 지수대인 2,000선 회복에 성공하였다.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대만과 인도와 같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뒤늦게 반등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향후 건조한 주가 흐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2,000선과 주요 지지선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증시도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꼬여있던 수급도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코스피는 지난 주 반등 흐름이 급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질적 사태 및 이상 기후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진국의 '기존 달러 인상'과, 선진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아시아 통화의 강제 압력으로 작용하며 '원화강세'가 나타나는 3고 현상이 2010년 4분기 이후 재차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기업이익 약화 우려와 글로벌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3고 현상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완만한 속도라면 이는 주식 투자에 불리한 환경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변동성의 급격한 확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진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효율적으로 억제되면서 완만한 3고 현상이 진행된다면 대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은 3고 현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분간 변동성이 잦아들며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빠른 시간 안에 적극적인 매수 기조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이 힘들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다시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스피는 주가 조정이 나타난 후 저점을 다져나가는 기간에 들어섰다는 판단이며, 현 지수대에서는 매수 관점의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지수 하락에 휩쓸려 급락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자의 경우 주도주인 IT, 화학, 자동차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자동차/부품업종의 경우 춘투가 예정되어 있어 매수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반도체/장비 및 금융주를,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화학, 건설, 무역주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꿈과 미래의 군산새만금을 달린다

제8회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The 8th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참가가접수

접수기간
2011. **1. 24 ~ 3. 25**
4.24(일) 08:30~ 군산 새만금방조제

■ 참가자격 : 대한육상연맹 미등록자
■ 접수방법 : www.smgmara.com
www.smgmara.org

■ 문의 : 군산시청 문화체육과(5F) (063-452-7731)
마라톤사무국 (02-416-7881)